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미래엔에스 스마트 보안관제 시스템 '테라웍스'

"찾는 데 반나절 걸리던 도주차량 30분이면 충분"

벤처기업 미래엔에스는 위치 기반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다. 영화와 드라마처럼 모니터 수십 개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주시하며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보안 관제 플랫폼 테라웍스가 주력 제품이다. 지리 정보를 접목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의 CCTV 화면을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유식 미래엔에스 대표는 "관제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위치 정보를 적용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해 원하는 곳의 영상을 바로 살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에 테라웍스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빠르고 편리한 관제 플랫폼

경남 창원시는 시내에 설치한 1000여 개 CCTV 영상을 관제하는 데 테라웍스를 쓰고 있다. 울산시 김포시 등 지자체는 물론 한국수출입은행,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테라웍스 고객사다. 김 대표는 "요즘 CCTV는 화질이 초고화질(HD)급이어서 영상을 처리할 때 하드웨어에 걸리는 부하가 적지 않다"며 "독자 개발한 압축 기술로 처리 속도를 높여 고화질 영상 여러 개를 동시에 보거나 추가로 틀어도 바로 재생되도록 한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치 기반 관제의 장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존 관제 플랫폼으론 지하 주차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간 차량을 찾으려면 반나절 가까이 걸리지만 테라웍스를 쓰면 30분도 안 걸린다"고 했다.

CCTV에 위치 정보 입혀 1000개 영상 부하없이 확인

전국 30여 지자체에 공급 내년 초 북미시장 진출

김유식 미래엔에스 대표가 서울 당산동 본사에서 위치 기반 관제 플랫폼인 테라웍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건물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입체 지도에 CCTV 위치가 입력돼 있어 도주 차량 경로에 있는 CCTV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어서다. 김 대표는 "기존 관제 시스템은 윈도 탐색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찾으려면 폴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녹화 내용을 검색해야 한다"고 했다.

◆매출 30% R&D에 재투자

미래엔에스는 LG CNS에서 위치 기반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팀이 분사해 세운 회사다. 2011년 설립한 뒤 옥외 지리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은 뒤 2015년 테라웍스를 출시했다. 옥외 지리 정보뿐 아니라 건물의 입체 도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CCTV 외에도 화재경보기 등 다양한 센서를 조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미래엔에스는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지정 증서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국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부터는 수출도 시작했다. 지난해 페루 시장에 진출해 올 6월 플랫폼 공급을 마쳤다. 8월부터는 라오스에 공급을 시작해 이달 구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미국에 지사를 세워 북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매출의 3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덕분에 페루 라오스 등 통신망이 한국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80억원의 매출을 올린 미래엔에스는 해외 수주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2월 으뜸중기 제품 △미래엔에스-스마트 보안관제 시스템 테라웍스 △우주텍-국내 최초 양모신발 르무통 △벤체-방충망 부착형 빗물막이 레인스탑 △세종몰-분필&종이칠판 세트

"연구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의료기기 인재 양성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 교육과정 시작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내년 3월부터 의료기기산업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을 시작한다. 연세대 의과대학 소속 병원이지만 전담 교육과목이 없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연구력 강화 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구성욱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사진)는 3일 "내년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끝냈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학위를 주는 전담 석사과정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성화대학원을 경영전문대학원(MBA) 같은 의료기기산업전문대학원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의료기기 분야 최고경영자(CEO)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고용 인력은 올해 4만5000여 명이지만 2020년 7만여 명으로 1.6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임상, 인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마케팅 등 모든 영역을 고루 아는 인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드물기 때문이다.

연세대 의대와 약대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제약·의료기기 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 중 의료기기분야 교육과정을 맡게 됐다. 3년간 매년 20명의 석사과정 신입생 교육을 지원받는다.

연세대 의대는 특성화대학원 교수진을 의료기기회사 출신 전문가 등으로 꾸리고 학생과 의료진 간 네트워크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있는 서울 도곡동은 고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병원에 오는 고소득층 환자들의 아이디어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기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교수는 "제품개발 아이디어가 많은 의사와 전주기 교육을 받은 인력이 어우러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현실(VR) 로봇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가성비 좋은 스마트공장, 여기서 배워가세요"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 '넥스트스퀘어' 1일 개소

탁상시계 한 개를 제작하는 데 10분이면 충분했다. 절단기가 아크릴판을 자르자 모바일 로봇이 가공기로 실어날랐다. 가공기에서는 아크릴을 시계 몸체와 받침대 크기로 가공한 뒤 미리 입력된 글자 '교육은 사람을, 사람은 세상을'을 새겼다. 조립 단계로 옮겨진 반제품에는 협업로봇이 시계를 끼워넣었다. 경기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 있는 스마트공장 배움터 넥스트스퀘어의 풍경이다.

넥스트스퀘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실습 교육장이다.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연수원 실습동에 연면적 336㎡로 조성했다. 장비조작시스템(CPS), 협업로봇, 가공기기(MCT), 이송로봇, 검사장비 등을 갖췄고 각 공정의 생산량과 불량률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 등이 지난 1일 스마트공장배움터 넥스트스퀘어 개소식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이 공간은 중소기업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됐지만 기계 및 시스템 설치 비용을 합쳐 10여억원밖에 들지 않았다. 이명선 중소기업연수원 부장은 "지난 10월30일부터 매주 20~25명의 중소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연매출 100억~200억원 안팎인 금형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제조 전 과정에 값비싼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지 않고도 공정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탁상시계 제작의 개별 공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미니 실습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전체 생산체계를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일부 라인만 자동화하려는 기업이 개별 공정 기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취직 예정자, 재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발굴 중이다. 스마트공장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연수원은 특성화고교 등과 업무협약(MOU)을 추진 중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여성 골다공증 환자 급증 "운동·햇볕이 보약"

국내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폐경 후 여성호르몬이 줄면서 질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비타민D 합성을 위해 매일 일정 시간은 햇볕을 쬐야 한다고 설명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79만505명에서 지난해 85만5975명으로 8.3%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만7000명에서 5만3000명으로 5.4% 줄었지만 여성은 73만4000명에서 80만2000명으로 9.3% 증가했다. 남녀 모두 50대 이상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이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증가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환자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베트남 로봇산업 조사단 파견

한·아세안센터, 6~9일까지

국내 기업이 베트남 로봇산업에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영선)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로봇산업 관련 투자 및 시장조사단을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산업시찰을 통해 베트남 로봇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6일과 7일에는 베트남 최대 기술집약형 산업단지 호아락하이테크파크와 베트남자동화협회, 산업 자동화 관련 현지 업체 등을 방문한다. KOTRA 하노이무역관, 현지 한인 기업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정보도 교류할 예정이다.

8일에는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로봇산업 투자포럼'을 열어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자동화협회가 베트남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유망 투자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김영선 사무총장을 비롯해 응우옌촨 베트남자동화협회 회장(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혁주 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분야는 '2011~2020년 베트남 경제기술발전 전략'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분야로 선정되는 등 투자가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채권 매각 공고

I. 매각 대상자산 현황 및 매각방식
1. 대상자산 : 농협은행(주)가 보유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신4번지 일원의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PF채권 및 담보권 등 이에 부수되는 권리
2. 매도인 : 농협은행(주)
3. 매각방식 : 공개경쟁입찰
4. 매각대상채권 : 601억원(원금베이지 포함, 2017년 11월말 기준)
(*) 양도담보자산에 대한 사업진행상황, 현장확인(조성상태, 현황 등), 인허가 현황, 관련 소송 및 제반 규제사항 등은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일 이후 이로 인한 문제를 매도인이나 재무자문사에게 제기할 수 없음

II. 매각 진행 일정
1. 입찰참가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 제출기한 : 2017년 12월 12일(화) 17:00 (대한민국 표준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43) 이스타빌딩 17층 이촌회계법인 농협은행 채권매각 Working Room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상기 제출일시까지 도착 기준요)
• 제출서류 : 입찰참가의향서 및 첨부서류 (입찰참가의향서 접수자에 한하여 매각대상자산 정보 제공)
2. 향후 진행 절차

구분	일정(대한민국 표준시)
입찰참가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2017. 12. 12(화)
매각대상자산 정보 배부(*)	2017. 12. 13(수)
입찰기일	2017. 12. 21(목)
낙찰자 발표	2017. 12. 22(금)

(*) 매각대상자산 상세내용은 재무자문사 담당자에게 "입찰참가의향서 등"에 제공하는 서류를 송부한 잠재적 매수자에 한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시 소정의 입찰참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유의사항
• 입찰시 금일십억원(₩1,000,000,0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 및 그 임직원 재무자문사 및 그 임직원에게 어떠한 민사상 · 형사상 이의제기를 민원 포함)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일정 및 본 매각절차는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 변경, 철회될 수 있으며, 입찰일 이후의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서류에 포함되어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제안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 시 자산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구체적인 자산매매대금 지급조건은 추후에 입찰안내 자료를 통해 고지될 예정임
• 입찰서 접수시간 이후의 추가 접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매도인의 고유권한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 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매도인의 고유권한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각종 민원 포함)도 할 수 없음
• 본 거래는 부동산 공매(담보물 처분)가 아닌 농협은행의 대출채권을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사업진행 상황, 사업시행권, 관련 인허 및 소송, 부지매입 현황, 제3자 권리제한사항, 체세공과금, 건축물, 사업장 관련 경도 및 철거, 지장물비용 등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부담에 대하여 매도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본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등은 재무자문사인 이촌회계법인 담당자 신세욱 이사 (02-785-4431)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농협은행(주), 재무자문사 이촌회계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따뜻한 주거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위원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상임감사위원 1명
• 임 기 :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추신 분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을 갖추신 분
•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을 갖추신 분
• LH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신 분
•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을 갖추신 분
• 상세한 자격요건은 당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점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페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5페이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17. 12. 4(월) ~ 2017. 12. 13(수) 18:00 (토·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 (16층, 경영관리실)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055-922-3152,3160~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